

“곡성 아이들에게 ‘동네 삼촌’ 같은 의사 되고 싶다”

65년만에 소아과 상시 진료 전문의...곡성 보건의료원 최용준 과장

“작은 지역서 건강한 진료 하고 싶어 경기도서 이직”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결실...오늘부터 평일 진료

“아이들은 동네가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나도 마을에서 아이들과 가까이 하는 ‘동네 삼촌’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또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문진과 진찰을 하고 충분히 설명 해주는 ‘건강한 진료’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65년 만에 곡성에 거주하며 매일 진료하는 소아과 전문의가 등장했다. 지난 3월 곡성군의 공모를 통해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곡성 보건의료원 진료과장으로 이직한 최용준(사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주인공이다.

지난 30일 곡성에 이삿짐을 풀 그는 1일 직원들과 인사차 보건의료원을 방문한 뒤, 2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

첫 진료를 앞두고 최용준 진료과장이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곡성에서의 의사 생활에 대한 기대와 각오를 밝혔다.

실제로 그간 곡성은 상시 문을 여는 소아과가 없어 아이가 아플 땐 1~2시간 걸리는 광주·순천 등 인근 도시로 나가야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주 2회 출장 진료가 도입되긴 했지만, 지역 내 상주하는 전문의는 없었다.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시행한 사업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의 시즌2인 ‘매일 만나는 소아과’에 따라 마침내 매일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지역의 어린이들은 지난 1960년 소아과 전문의 제도가



〈곡성군 제공〉

가 시행된 이후 첫 상주 전문의의 진료를 받게 돼 원정 진료를 받으러 가는 불편을 덜게 됐다. 현재 곡성군내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18세 이하 대상은 2400여명에 달한다.

당초 진료 전부터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인터뷰조차도 부담스러워했던 그의 신중한 성격이 답변 곳곳에 담겨있었다.

경기지역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 곡성행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대구가 고향인 그는 “연고도 없고, 나이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고심 끝에 결심했다”면서 “곡성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군수와 실무 공무원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 전문의를 영입하기 위해 군수의 삼고초려도 있었다고 한다.

이어 그는 “국내 출산을 저하와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내가 지금까지 배워 온 것으로 작은 기여를 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작은 지역에서 건강한 진료를 하고 싶다”며 곡성행 배경을 밝혔다. 그가 말한 ‘건강한 진료’는 세밀하게 물어보는 진료, 신체를 유심히 살피는 진찰, 환자와 보호자가 알기 쉽도록 하는 자세한 설명에서 비롯된다 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아이들은 어른보다 진료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선 출생아 수가 급감했음에도 소아과 오픈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보호자들의 불안 때문이며, 그 불안을 줄이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충분한 설명”이라는 것이다.

그는 불철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옷차림에 신경 써 체온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바깥 많이 부는 날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추위와 건조함은 급성 호흡기 질환의 주요한 환경 요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끝으로 곡성의 첫 인상에 대해서는 “곡성이 마음에 딱 든다”면서 자세한 것은 ‘노코멘트’했다. 한편 곡성군 보건의료원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하며, 수요일엔 오전 진료만 한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2025 세계노동절 광주대회’가 1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열렸다. 광주지역 민주노동 산하 노동단체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주4일제” “쌀값 보장”...각계 대선 공약 요구 ‘붐물’

노동계·농민회 등 제시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를 향한 시민사회·노동·농민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미래 희망을 만들어가자는 요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동계는 노동절을 맞아 대선 요구안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2025 세계노동절 광주대회’를 열고 주 4일제 도입과 노동

시간 단축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차별과 착취 없는 사회를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만들자는 목소리를 되살리자”고 요구하며 ▲노동 3권 완전 보장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 ▲자영업자 권리 보장 등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서울 중구 송레문 앞에서 나눠 노란봉투법 재추진(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생활 가능한 최저임금과 적정 임금 보장 등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당선 이후 재임 기간 협약 이행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협약에는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65세 정년 연장 폐지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공적연금,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앞서, 전국농민회 등 농민단체는 지난 29일 트랙터 상경 시위 계획을 밝히며 핵심적으로 반영해야 할 농업농촌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농민들은 ‘수입 개방에 대한 근본적 처방,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정장치, 농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로스쿨 졸업 143명 ‘재판연구원’ 임명

전남대 로스쿨 출신 18명 최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릭)으로 임명돼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1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재판연구원들은 이날 사법연수원의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광주고법을 비롯,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이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법원별로는 서울고법 75명, 대전고법 12명, 대구고법 7명, 부산고법 19명, 광주고법 11명, 수원고법

19명이며 출신 로스쿨로는 전남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16명), 성균관대(15명), 이화여대·한양대(각 11명) 등의 순이었다.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해 법원의 재판업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선발된 재판연구원 중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갖춘 3명은 특허법원에 배치된다.

지난 1월 재판연구원 규칙 개정으로 전체 정원을 400명에서 480명으로 늘리면서 지난해(118명)에 비해 선발 규모가 다소 늘어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대·조선대 의대생 대규모 유급 현실화

수업 참석 신청 마감

의대생의 수업 복귀 시한인 4월 30일이 도과하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전남대·조선대를 비롯한 전국 의대에 ‘의대생 유급 현황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각 의대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급 절차를 밝기 시작하면서다.

1일 조선대는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학생들의 수업 참석 희망자에 대해 받은 ‘수업 참여 신청’을 마감하고 신청자 수를 집계하고 있다. 집계 결과는 오는 7일 교육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조선대 의대는 미신청자에 대해서 유급 절차를

밝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업 등 대체 수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대 의대는 지난달 20일을 기점으로 유급 기준인 ‘수업 일수 4분의 1’ 선을 지난 데 따라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전남대 관계자는 “성적이 ‘F’ 처리 돼야 유급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유급 확정 여부는 학기말에 정해진다”며 “대학은 교육부 방침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었던 지난 3월 31일 의대생들이 모두 복학신청을 했으나, 수업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알바 땀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PROPERTY-CASUALTY INSURANCE ASSOCIATION

IGA보험GA협회
IGA INSURANCE ASSOCIATION